

사회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손 놓을판'

광주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턱없이 부족 최악의 운영난

가족·친인척 도움 연명...대책마련 절실

광주지역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심각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30명 미만의 경우 339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70만원 정도를 현장학습 등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7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충당해야 해 통상 센터 대표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물론 평가 때까지의 운영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 5000만원 정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과 후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초콜릿 선물 밀로 할까 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 앞둔 12일, 광주 서구 충장로 한 편의점에서 젊은이들이 선물할 초콜릿과 사탕을 고르고 있다.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5-day outlook.

재판중인 前교육장 파면 논란

광주교육청 '정상적인 절차'... 교육계 '전격징계 의문'

광주시교육청이 퇴임을 보듬어 남겨 준 교육장을 급물살 수 혐의 등으로 파면했다.

며 5년간 공직 임용도 불가능하다. 이달말 정년 퇴직하는 이 전 교육장은 지난해 5월 수의계약 대가로 업무제한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주택 담보 공사를 공짜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났음에도 징계를 미뤘던 교육청이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징계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폭력 직무유기 혐의 없는 교사 무혐의 처리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진정을 내도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경찰 차원에서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처리하기로 했다.

가 뚜렷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불합리하면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끼 2마리 또 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는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지난 달 새끼 2마리를 낳았다고 12일 밝혔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가카 빅넷' 게시글 논란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넷'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결국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됐다.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HR)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about hearing aids and insurance services.

Advertisement for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Renewable Energy Solar Home Subsidy Center) with details on solar panel installation and subsidies.

Advertisement for '광신대학교' (Gwangshin University) featuring a notebook and text about a Bible study program and domestic violence education.